

# 목포시, 친환경선박산업 국내 최고 연구기관 등과 개발 박차

### 전남도·한국전기연구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업무협약 인프라 구축·활용·친환경선박 관련 국가 과제 공동 협력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전기추진기술 개발에 유관기관과 박차를 가한다.

시는 29일 전라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함께 '친환경선박 전기추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목포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국내의 최고 전기 및 선박 관련 국책연구소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친환경 전기추진 기술 인프라 공동 구축 및 활용 ▲친환경 전기추진 기술 중장기 로드맵 공동 수립 ▲산업계(조선, 해운, 기자재) 필요 핵심기술 공동 개발 및 상용화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참여, 대응 ▲국가 R&D(연구개발) 공동 참여 및 상호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항에 조성되는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더욱 내실있고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목포 산업의 새로운 든든한 축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450억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415억원) 등 친환경선박산업을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육성할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항을 세계적 친환경선박 메카로 발돋움시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목포=박정수기자



## 무안군, 주꾸미 어족자원 증대 위해 발벗고 나서

### 해상 가두리 2개소(12칸) 설치하고 어미 주꾸미 130kg 입식



무안군은 최근 주꾸미 자원 조성을 위해 망운면 압창·장재연안에 주꾸미 해상 가두리 2개소(12칸)를 설치하고 어미 주꾸미 130kg을 입식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3~4월 서남해안 어업인의 주요 수산물로 무안군은 2015년부터 주꾸미 해상 가두리 2개소를 설치해 매년 주꾸미 부화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류사업은 해상 가두리에 어미 주꾸미의 산란·서식장인 소라방을 설치하고 알이 부화하면 자연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육상수조에서 산란·부화시킬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공식현상과 바다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한 것이다.

마리당 평균 270~290개의 알을 산란하는 어미 주꾸미는 입식 후 1개월 동안 바지락 등 먹이를 먹으며 성숙·산란과정을 거친 후 금어기가 시작하는 5월 11일 전후로 자연부화·방류될 예정이다.

박홍양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낙지, 주꾸미 등의 자원조성을 위해 어업인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며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주꾸미 금어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관광 홍보도 온라인으로, 영광서 봄나들이 어때요?

영광군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뀐 관광분야 소비트렌드 및 관심매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영광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영광군의 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광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월별로 아름다운 영광 관광지를 선정하여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파급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5월에는 설레는 봄 읍초였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영광군 대표 힐링 여행지를 집중 홍보한다.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진 백수해안도로 벚꽃길과 4월이면 진분홍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는 묘량 장암산,



철쭉으로 둘러싸인 숲쟁이꽃동산, 불갑 저수지 벚꽃길 등은 비대면 안심 봄나들이 여행지로 더할 나위 없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모집

영암군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제1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영암군 여성자치대학은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반 과정 802명과 심화 과정 634명 등 총 1,4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오면서 다양한 교과 편성과 우수한 강사진 활용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아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국립 목포대학교에 위탁하여 제16기 신입생 60명과 제15기 2년 차 과정 30명 등 9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 인문학, 건강·자기관리,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교과와 국내외 현장학습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총 26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30세부터 65세 이하 관내 거주 여성이 대상이 되며,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항목 320종→463종 확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잔류 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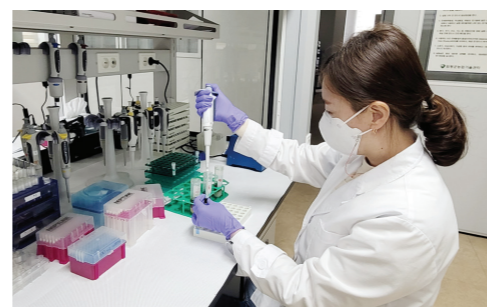
함평군은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강화에 따라 4월 1일부터 잔류 농약검사 항목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검사대상은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

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 및 인증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이 다.

군은 이달까지 463종에 대한 원활한 분석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잔류농약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산물 0.5~1k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



성 분석실'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